

성시신문 Magazine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251

Winter 2024

성시화

춘천성시화운동의 인큐베이터 incubator
춘천 평신도성경구락부

기획연재

그 길을 걷다
감동을 주는 신앙인 한상술 대표

기획특집

1세기 전의 춘천읍교회(춘천중앙감리교회) 부흥회
기독교정신과 강원형 자치분권

문화에 빠지다

맛기행 예수님의 미소

영화이야기 하나님의 마음

영화감상 김복동

책속의 책 맥체인 성경읽기 해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잘 쉬다는 것

건강 유행과 몰약



창간1998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Contents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성시화

03 춘천성시화운동의 인큐베이터 incubator – 춘천 평신도성경구락부 | 편집부

기획연재

06 그 길을 걷다 | 이영규 목사

08 감동을 주는 신앙인 – 비타민 숲 무릉도원지기 한상술 대표 | 이연희 목사

기획특집

11 1세기 전의 춘천읍교회(춘천중앙감리교회) 부흥회 | 김동정 장로

14 기독교정신과 강원형 자치분권 | 조용호 박사

문화 | 영화 | 책 FOOD MOVIE BOOK

15 맛 기행 예수의 미소 | 이관형 권사

17 하나님의 마음 His only Son | 김춘배 화백

19 명화감상 | 김복동

20 책 소개 책속의 책 | 정숙현 전도사

21 건강 유행과 몰약 | 이시형 원장



춘천성시화운동후원하기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

춘천성시화운동본부 QR코드 후원참여에 들어가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참여

춘천성시화운동의 인큐베이터 incubator 춘천 평신도성경구락부

편집부

역사적인 춘천성시화운동은 1972년 여름,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총재 김준곤 목사, 초대 간사 윤수길 목사)와 춘천의 교회들(위원장/김연호 목사. 춘천중앙감리교회), 우수한 기독교단체들의 연합운동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춘천 평신도성경구락부」였다. 춘천 평신도성경구락부의 초



기 회원이었던 이순훈 장로(86세. 전 월드비전 관장)와 김성호 목사(덕두원교회 원로목사. 고 김연호 목사 子), 김명영 장로(강원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순복음춘천교회)를 만나 그 당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본다.

(최상도 목사)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기 성경구락부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순훈 장로님께서서는 성수중고등학교의 총무과장, 월드비전 관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활동에 깊이 관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훈 장로) 예. 그렇습니다. 「춘천 평신도성경구락부」의 시작은 1970년 초반, 강원일보사 편집국장이었던 조남진 장로(순복음춘천교회. 소천)가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아마도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였는데,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완치되는 기적을 통하여 조남진 국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조남진 국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CCC 윤수길 간사를 비롯하여 김형목, 박재현 등과 모여 성경공부를 함께 시작하였고, 그 소문이 나자, 저를 비롯하여 문선재, 이원봉, 정길연, 이학규, 박태준, 김기태 형제 등 20-30명의 평신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이 초기 「춘천 평신도성경구락부」의 태동이었습니다. 모임이 활발히 진행될 즈음, 때마침 윤수길 간사를 통하여 한국 CCC대표였던 김준곤 목사님이 춘천 평신도성경구락부에 관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춘천에 내려오셔서 스위스 제네

바와 춘천의 유사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춘천을 제2의 제네바와 같은 도시로 만들 비전을 밝히셨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지금 춘천시청 뒷골목의 어느 중국집에서 당신의 생각을 저를 비롯한 몇 사람에게 처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영명 장로) 저는 초기 성경구락부 활동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 오랫동안 직장선교연합회를 돕고, 또 지난 2010년에 발간된 「춘천성시화운동과 홀리클럽」(발행인: 이학규)의 전체 편집책임을 맡으면서 그 내용을 비교적 소상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순훈 장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남진 장로님은 1970년에 처음 병 고침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강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수길 간사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수원 농대 캠퍼스에서 열린 ‘민족복음화운동요원 강습회’(CCC주관)에도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고 내려온 뒤 모여지기 시작한 것이 초기 「춘천 평신도성경구락부」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무리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경을 배우고 각자가 체험한 신앙을 간증하는 일은 놀라운 열매를 맺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평신도지도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수, 초중고 교사, 공무원, 언론인, 경찰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인 이 모임은 단시일 내에 30여 명의 지도자들로 늘어났고, 날이 갈수록 활기를 띠어갔습니다.

(최상도 목사) 춘천 평신도성경구락부가 1972년 춘천성시화운동의 출발에 인큐베이터incubator 역할을 한 것이 놀라운데요, 당시 춘천 교계와 그 중심에 있었던 춘천중앙감리교회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김성호 목사) 저는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요 교육자이신 선친 김연호 목사님(당시 춘천중앙감리교회 담임)으로부터 늘 민족복음화와 춘천성시화운동의 꿈에 대해서 듣고 자라왔습니다. 선친께서는 당시 ‘춘천성시화운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춘천교계를 대표하여 교회를 하나로 묶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일조하셨습니다. 허길 목사(샘밭침례교회)를 총무로, 김홍규 장로(당시 춘천YMCA 총무)를 협동총무로 하여 역사적인 1972년 여름의 성시화대회가 열린 것입니다. 여름방학 때라 전국에서 몰려든 청년 대학생, 일반인들을 위하여 봉의초등학교를 비롯한 춘천 시내 여러 학교를 숙소로 사용하고, 소양강변에 5천명이 먹을 특설 취사장이 설치되었습니다. 한전과 2군단 등의 협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져 기록적인 대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춘천성시화운동을 여러 측면에서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평신도성경구락부, CCC 등과 함께 당시 춘천중앙감리교회의 리더십과 목회자등 춘천 교계지도자들의 역할과 협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춘천 평신도성경구락부」는 1971년부터 1995년 8월까지 춘천CCC회관, YMCA 회관, 대화관(중화요리집), 순복음춘천교회, 석사감리교회, 베드로병원, 보험회사, 미장원 등에서 모였다. 변충구 목사, 김동성 목사, 이학규 장로 등이 성경공부를 인도하였고, 100여 명의 회원들이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춘천성시화를 위하여 20여 년간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1995년, 검사장 공관(전용태 장로)에서 모이는 기관장 기도모임과 목적이 같고 모이는 시간이 중복되어 「춘천 평신도성경구락부」를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춘천기관장기도모임」과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다(「춘천성시화운동과 홀리클럽」 참조)



초창기 실내체육관

그 길을 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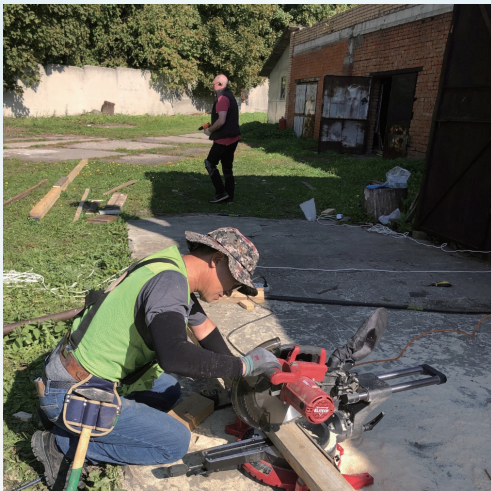
이영규 목사

(신북성결교회, 성시신문편집위원)

“슬프다 주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두 소리가 내 입 안에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만난 유태권 선교사가 얼마 전 별세했기 때문입니다. 전 올해 9월에 두 주간, 이어 10월에 두 주간 러시아에 있었고 그때 그를 만났습니다. 저보단 어리고 건강했는데,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었고, 진리 자체로부터도, 선교사들의 증거도 있었기에 크게 기뻐했었습니다. 이 일뿐 아니라, 여러 번의 선교여행을 하고 오면 ‘난 가 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후 11:24-27에서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는 바울의 발언을 읽으면서 전 그런 위험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사탄이 시시하게 여기고 안중에도 두지 않는 존재구나!’(행 19:15)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가볍게 읽어 주기를 바랍니다.

전 일 년 중 두 달 정도는 선교여행을 합니다.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올핸 필리핀 두 번, 아프리카의 케냐,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앞서 말한 러시아에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올핸 두 달이 넘게 국외에 있었네요. 미국식 경량 목 구조 기술이 좀 있어 건축 공사를 해 준다든지(전기, 태양광, 용접도 하지만요, 동역으로 황석호 안수집사, 이강민 목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갈 땐 7명이 함께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질로 돕는 일을 한다든지(고은장로교회, 신북교회의 은혜로), 신학 교육, 말씀 사역을 한다든지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번 해엔 전도는 한 번도 안 했네요. 사탄이 시시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겠네요. 기도도 사역에 포함한다면 방문한 기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네요. 그중 러시아의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아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모스크바의 고층 빌딩이 공격받고(가 봤어요.), 공항들이 공격받고(두 번째 갈 땐 항공료가 딱 두 배로 뛰었었어요, 공항이 폐쇄된 곳도 있었구요.) 하는 와중이었지만 가는 것이 무섭지는 않았어요. 주변서는 걱정했지만 제가 죽을 날이 별로 안 남아서요. 나이는 어리지만 건강이 썩 안 좋거든요. 앞서 유태권 선교사님을 거론하면서 ‘건강했는데’ 라고 쓴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저를 골한 선교사님은 러시아북음주의신학교의 조동석 선교사입니다. 화재로 건물 두 동이 소실되었는데 모스크바주에서 모스크바시로 행정구역이 바뀌는 바람에 건축물대장대로 되어 있는지 실사가 오기에 급히 요청한 것입니다. 예전 한 10년 정도 제가 강의하며 거점으로 선교한 곳인데 제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다가 알게 되어 친숙하니 부른 것입니다. 설명 듣고 작업을 시작하다, 건축물대장의 도면과 소실되었지만 건물의 위치와 크기가 달라 기초부터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재료도 아니고, 재료도 구하기 어렵고, 건축공구도 별로 없고 해서 난감했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음식물을 씹듯, 또 모든 목사님들이 경험하듯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쉽게 할 수 있었고, 두 주, 한 열흘 정도에 기초 및 40평 정도의 벽체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직원과의 갈등 등이 있어 좀 더디었지만(이들의 차이보단 화평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것은 어디나 다 있잖아요. 넉넉히 극복하고 거기까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말씀 사역은 기본이고요. 예배 중 해금으로 찬양을 드린 것도 생각나네요. 겨울이 한국보다 좀 일찍 오기에 걱정이 되었던 선교사님은 지어진 부분도 보존하고 실사를 마칠 수 있을 정도의 완성을 위해 다시 부름이 있어 지붕 공사와 전기설치 공사, 중2층 살림집(건축물대장 도면엔 없지만 불법이 아닌)을 짓기 위해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한국보다 6시간이 빠름) 일과를 마치고 저녁을 먹은 후 피곤하지만 자지 않고(한국 시각으론 밤 12시가 넘으니) 모스크바 시내를 구경하여 적응하려고 했고(일식삼조쵸, 시차 적응, 여행, 교제), 일머리에 차이가 있어(첫 두 주간 때는 직원 두 명이 이를 참여했다, 두 번째 주간엔 지붕 재료인 철판 슬레이트 골판 나르는 하루 도왔다. 나머진 선교사님과 제가) 충분한 대화와 마쳐야 한다는 공통된 마음, 리더에 대한 순종으로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진척이 눈에 크게 들어오니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슬라바 보구!(러시아어로 이런 발음으로 들림^^) 다음엔 전도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군요.



감동을 주는 신앙인

비타민 숲 무릉도원지기 한상술 대표(춘천온누리교회 권사)

이연희 목사(아미교회)

‘감동은 에너지’입니다.

감동주는 사람은 ‘비상하는 독수리’ 같습니다

비상하는 독수리같은 신앙인 한상술권사님을 소개 합니다.

한 권사님은 아내요, 어머니이요, 교회의 권사님이시지만 한 시민으로서도 다방면으로 왕성하게 움직이시는 활동가이십니다.

춘천시 서상면에 위치한 비타민 숲 무릉도원(비타민 숲, 느린 숲, 서면의 숲 그린 우드)의 대표이시며, 숲 해설가이십니다. 또한 웰빙 오행쑥뜸방(명동에 위치함)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십니다. 가정과 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멀티플레이어의 주인공이십니다. 주중에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주말에는 심신에 지쳐 휴식을 취하려고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위해,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하루를 열심히 달리는 분이십니다.

신앙인으로서의 권사님이 대표로 있는 비타민 숲 무릉도원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과로한 심신과 영혼을 치유하는 정말 비타민 같은, 무릉도원 같은 펜션입니다.

화전 답, 황무지를 개간하여 오늘의 비타민 숲 무릉도원이 있기까지의 수많은 사연과 아름다운 이야기, 결혼 전후의 신앙생활과 자녀출산, 양육의 이야기, 숲 해설가로서 풍부한 식물의 종류와 지식, 여러 가지의 꽃들을 가꾸는 모습은 직접 만나보신 분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텀병 빠지게 합니다.

먼저 비타민 숲 무릉도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춘천시 서상면에 위치한 비타민 숲 무릉도원은 가보신 분들이라면 무릉도원과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권사님의 손때 묻은 정성의 열매들이 곳곳에 드리워져서 찾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무릉도원 같은 정원과 펜션을 일구어내셨습니다.



1986년 30세 되던 해에 6천여 평의 황무지, 화전 답을 매입하여 40여 년을 손수 가꾸어 오셨다고 합니다. 돌을 고르고, 땅을 파고, 바닥을 다지면서 구석구석에 권사님의 영혼을 불어넣고, 많은 사람에게 깊은 안식과 평안을 주려고 애쓰신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비타민 숲 무릉도원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것은 해

마다 봄이면(4월 중순경/벚꽃이 만개할 즈음) 개복숭아꽃 축제가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을 머물게 하는 꽃 대궐 같은 곳입니다. 코끝을 자극하는 그윽한 향기가 진동하고, 파란 봄 하늘과 어우러지는 진분홍색 개복숭아꽃은 참으로 누구에게나 감동을 선사하고, 감탄사를 연발하여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광경을 연출하는 곳입니다.

또한, 정원에는 수많은 꽃이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릴레이로 피어나고, 향기를 내뿜고, 겨울에는 산자락과 둘레에 가득한 나무들 위에 내린 함박눈의 눈꽃들이 방문객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친구들과 가족여행을 하면서, 지치고 힘든 심신에 비타민을 공급하듯 자연스런 비타민 숲 무릉도원의 특별한 비타민을 공급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펜션을 가꾸게 되었을까?

“아버지께서는 간식거리가 드물던 어린 시절, 개복숭아를 말려서 겨울에 간식으로 9남매를 키워 주셨습니다.” 그때 보았던 복숭아꽃의 추억, 먹고 자란 개복숭아 꽃을 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개복숭아 씨앗 두 말을 사다 싹을 틔우고, 모종을 키워 들어가는 진입로와 냇가 전체에 심었습니다. 그 복숭아나무가 자라서 이렇게 해마다 아름다운 복숭아꽃 축제를 연출하여 감동을 주고, 복숭아 열매는 효소를 담가서 건강식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듬뿍 느껴지는 달콤한 추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정원에 가꾸는 꽃 종류들을 재미있고, 즐겁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 식물들의 생태계를 자세히 쉽게 알려주시는 섬세한 면들은 숲해설가다운 면모를 잘 보여주십니다. 어린 자녀들의 식물공부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선교사처럼 도전한 결혼생활 이야기입니다.

모태 신앙인으로 자랐지만, 교회 다니기로 약속한 남편과 시집식구들을 철석같이 믿은 권사님의 결혼생활은 눈물의 골짜기요, 극한 인내를 요구하는 고난의 터널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은 놀라운 기적, 드라마 같은 권사님의 인생을 엿보게 합니다.

첫딸을 임신하여 만삭되었을 때 겪은 주일예배의 어려움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도 재미있게 말씀하시던 권사님은 인생역전의 용사라고 모두가 손뼉을 쳤습니다.(지면 관계상 생략합니다)

주일 아침이면 일거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던 시어머니, 어느 겨울 김장철에 떨어진 불호령에 서둘러 일을 마치고 주일 예배가려고 몸부림치다 양수가 터져 나온 첫째 딸의 아픈 사연은 예배에 목숨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참모습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남존여비, 남아선호사상에 가득한 시어머니 앞에서 세 명의 딸을 출산하며 겪었던 고난과 아픔의 세월,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던 신앙인의 하루하루는 권사님으로 하여금 위대한 어머니, 숭고한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신실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였습니다.

첫째 딸은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딸의 은혜스런 이야기는 방송출연을 참고하시면 더욱 감동적인 권사님의 자녀를 만나보게 되실 것입니다. (참고: CBS 새롭게 하소서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둘째 딸은 과학자로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막내딸은 출산하여 육아에 집중하며 어머니 권사님의 사업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믿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괜찮겠느냐?” 물어보시던 아버지의 말씀에 “선교도 가는데요, 선교하는 맘으로 가지요” 용감하게 대답하고 시작한 결혼생활은 이혼을 결심하게 할 정도의 혹독한 세월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이혼은 안 된다고, 끝까지 결혼생활을 이어가도록 하셔서 지금의 귀한 자녀들과 남편 장로님을 세우고,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3대째 신앙인, 모태신앙 권사님의 값진 신앙사연은 다음 호에 계속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전의 춘천읍교회(춘천중앙감리교회) 부흥회

김동정 장로

(춘천신성감리교회, 가톨릭관동대 역사교육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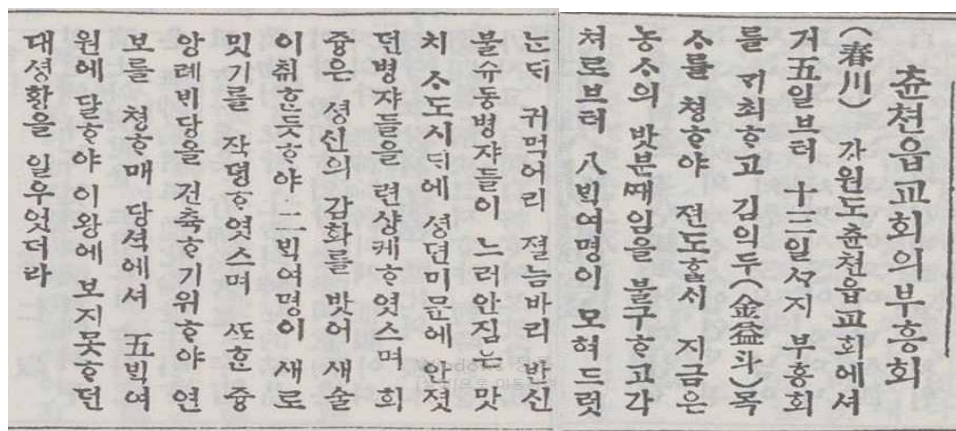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4년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제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생활했던 춘천지역 믿음의 선조들 교회생활을 『기독신보』에 실린 내용들을 소개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생활을 돌아보고 점검해보고자 한다.

1910년대 춘천읍교회(춘천중앙감리교회)는 200명 정도였던 교인의 수가 3·1운동을 거친 후 1920년대 중반에 들어 3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선교백년 전도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1923·24년에 교세가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일학교 학생도 100명 수준을 넘어 300명에 육박했다. 1920년 창설된 엽청년회 회원도 30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고 교회 재정도 헌금 총액이 1,300원에서 2,200원으로 늘어났다. 1910년에 지은 대판리 예배당으로는 늘어난 교인들을 수용할 수 없었다. 새 예배당이 필요하였다.

김익두 목사 초청 부흥회

이에 1924년 5월 5-13일, 장로교의 유명한 부흥사 김익두(金益斗) 목사를 초빙하여 부흥회를 개최한 것도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였다. 부흥회 결과를 『기독신보』(1924.5.28)에서는 ‘춘천읍교회의 부흥회’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소개하였다.

강원도 춘천읍교회에서 거 五일부터 十三일까지 부흥회를 개최하고 김익두(金益斗) 목사를 청하여 전도할 새 지금은 농사의 밭분 때임을 불구하고 각처로부터 八百여 명이 모혀드렸는데 귀먹어리 절름바리 반신불수 등 병자들이 느러안짐은 맞치 사도시대에 성전 미문에 안졌던 병자들을 련상케 하였으며 회중은 성신의 감화를 받아 새 술에 취한 듯하야 二百여 명이 새로 밋기를 작정하였스며 또한 중앙 레배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연보를 청하매 당석에서 五百여 원에 달하야 이왕에 보지 못하던 대성황을 일우엇더라.



‘신유’(神癒) 부흥사로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의 춘천교회 부흥회에는 병자들이 몰려들었고 부흥회를 통해 새 신자 200여 명을 얻었다. 이보다 놀라운 결과는 참석한 사람들이 ‘중앙 예배당’ 새 성전 건축 기금으로 교회의 1년 예산에 해당하는 500원을 헌금한 것이다.

춘천여자관(춘천중앙감리교회 예배당) 건축

이렇게 해서 마련한 건축 헌금은 미국에서 보내 온 ‘선교백년 기금’에 합쳐져 여선교부의 ‘춘천 여자관’ 건축비로 충당되었다. 춘천 교인들이 낸 헌금은 춘천여자관 전체 건축비(2만 원)에 적은 부분(2.5%)을 차지하였지만 춘천교회는 여선교부와 합동으로 건물을 짓는 형태를 취하였고 그리하여 교회는 1924년 연말에 완성된 건물의 반(50%)을 사용하는 특혜(?)를 얻었다.



춘천여자관(춘천중앙감리교회)
그자예배당(1925) 모습

이런 관계로 춘천여자관은 건축할 때부터 1층은 여자관으로, 2층은 춘천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지었다. 그래서 건물을 ㄱ자 모양으로 지은 것도 그 때문이다. 당시 만해도 ‘남녀구별’의 사회적 풍습이 남아 있었기에 ㄱ자로 꺾어진 모서리에 강대상을 두고 양 날개 쪽에 남녀 좌석을 별도로 두어 ‘한 지붕 아래’ 남자와 여자가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지은 새 건물은 양쪽에 80평, 합쳐 160평되는 큰 규모였다. 건물이 마련되자 춘천교회는 춘천여자관이 사업을 개시하기 1년 앞서 2층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즉 이로써 춘천교회는 예배당이 없던 ‘유랑의 시대’(18981905년)에서 시작하여 이덕수의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아동리 시대’(19051910년)와 춘천 선교부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대판리 시대’(19101924년)를 거쳐 이제 ‘허문리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계속된 부흥

이후에도 춘천지역은 춘천읍교회 담임을 역임한 유한익 목사의 헌신으로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다. 1925년 9월 23일 『기독신보』에서는 ‘남감 순행목사 유한익씨 수확’이란 제목으로 유한익 목사가 1924년 9월부터 1925년 7월까지 10개월 동안 남감리회 7지방 모두를 1년에 두 차례씩, 26개 구역 교회를 순회하며 전도한 결과 새 신자 2,764명을 얻었는데, 그 중 705명은 전에 믿다가 도중에 타락했다가 다시 믿게 되었으며, 부흥된 교회가 57개, 새로 설립한 교회가 33개, 온 가족이 믿게 된 합심 가정이 77가정, 우상 숭배를 버리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111명, 십일조를 작정한 교인이 14명, 자급 헌금을 작정한 교인이 작정 61명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다시 1년 후 1926년 7월 7일 『기독신보』에서는 ‘춘천지방 신자 격증’이란 제목으로 유한익 목사의 전도 활동 결과를 “남감리 순행목사 류한익씨는 六월 八일로 동 二十四일까지 춘천지방에 순회하였는데 전도 상황은 여좌하더라. 청도자(聽道者) 769, 신신자(新信者) 137, 신설교회(新設教會) 1, 신기도처(新祈禱處) 1, 부흥교회(復興教會) 6, 합심가정(合心家庭) 14.”라고 하여 불과 보름 동안 춘천 지방에서만 활동한 결과인데도 새 신자 137명에 교회와 기도처를 각각 하나씩 설립하는 성과를 얻었으니 당시 춘천지방 주민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만하다.

기독교정신과 강원형 자치분권

조용호 박사(춘천성시화연구소장)

전문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법이 내년 6월에 시행된다. 지난 1년 북방의 찬 바람 부는 휴전선을 마주한 이 지역에 산업육성과 주민이 잘사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 농지, 미활용군용지, 환경을 4대 규제로 설정하고 도청과 강원연구원을 오가며 정책입안가, 연구자, 산업현장 전문인들과 복잡한 국가법령을 강원도의 시각으로 다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안 마련에 가장 어려운 점은 비전 설정이었다. 내로라하는 석학을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허전함이 있다. 강원도를 한반도 중심지역의 글로벌한 지역으로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 땅의 사람을 꿈꾸고 도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사상가가 들려주는 깃발은 냉철한 해답을 찾은 듯하다가도 유리알 유희 같고, 현장전문가의 열정적인 이야기에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술한 검증이 필요하다. 차라리 어느 쇼핑몰의 “규제의 땅 강원도에서 자율의 땅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광고카피는 재미있기라도 하지.

현대철학의 기초인 계몽주의는 흔히 프랑스 정신으로 알려지지만, 스코틀랜드 정신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형식논리 중심의 이성적 추론보다는 경험적 사실과 전통이 만들어 내는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 인위적인 평등이념보다 도덕 감정과 공감력을 가진 개인들의 ‘자유’와 ‘공동선’을 중시한다.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개인주의는 바로 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작은 사변협회[speculative society]라는 토론 모임이 출발점이라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스코틀랜드 사상은 1707년 통치권자인 로즈베리 가문이 재정난으로 스코틀랜드 주권을 영국에 1만 2000파운드에 팔아 넘겨 스코틀랜드 공공부문이 무너진 데서 출발하였다고 한다. 정부의 기능이 축소된 공공영역에 민간의 질서가 들어왔다. 그 주역들이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이다. 참여하는 지성이 미국의 독립혁명을 이끌었고 사회주의에 맞서 자유주의 이념으로 승리를 거뒀다.

광야 같은 환경에서도 도전하고 도전하는 정신적 기초는 무엇인지요, 이 아침에 다시 두 손을 모으고 물어본다.

육개장을 먹는 시즌이 돌아왔다.

이관형 원장(춘천 자연유치원)

필자는 점심시간만 되면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입맛이 없어 끓고 싶지만, 그래도 뭔가를 배에 채워 넣어야 한다는 원초적 본능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많다. 그래도 먹어야 하니 점심시간에는 탕반(湯飯) 민족답게 설렁탕, 추어탕, 콩나물국밥, 육개장 등 맛 집을 찾아 밥과 국을 한데 말아 후다닥 먹어치운다. (국밥은 역사가 깊은 우리나라 패스트푸드 음식이다.) 그중에 평상시 마음껏 먹기 힘든 한우 소고기가 나오는 육개장을 제일 좋아하는데 메뉴 가짓수가 많은 분식점에서는 육개장을 사 먹질 않고 ‘견우성’, ‘함흥냉면옥’ 등의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즐겨 먹는다.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육개장은 사람의 수고가 엄청 필요한 음식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같은 값인 막국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저렴하다.



이렇게 맛있는 육개장이지만 추운 겨울 장례식장에서 먹는 육개장 맛은 그때그때 다르다. 살아생전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정성 어린 따뜻한 육개장은 감동이지만, 그렇지 않고 성도들에게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은 피해를 끼친 이의 장례식장에서 먹는 육개장 맛은 기분상이겠지만 같이 나온 여느 반찬과 마찬가지로 메마르고 썩 냄새가 나는 듯하여 딱히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를 않는다.

지나고 보면 필자인 나도 한때 “세상의 모든 나쁜 일은 교회에서 겪었다”라는 책을 써 볼까 할 정도로 교인이라 불리는 주변 사람들이 내게 잊지 못할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었다. 만약 살아생전에 “그때 왜 그랬어요?” 라고 질문하면 모두 똑같이 결국은 ‘돈’이란 탐욕 때문이었다고 말했을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10) 이같이 살아생전에 나쁜 일을 한 교인들이 소천하게 되면 과연 천국에 갔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역이니 알 수가 없다. 다만 고인이 된 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고인의 씻을 수 없는 죄를 떠맡은 유족들에게 평생 지탄을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일까? 유족들도 장례식을 치른 후 조문에 대한 감사 인사치레도 없이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보거나 안보거나 상관없는 사이가 되어 간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의식하며 현재를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다.

9988(99세까지 88하게 살자)이라고 하지만 정작 99년(36,135일) 동안 웃는 시간은 88일밖에 안 된다고 한다. 잘 죽어야 한다. 잘 죽지 못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큰 죄를 물려주는 것이다. 오래전 구세군교회 사관(목사)님의 설교 중 잘 죽게 해달라는 기도도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교인으로 보이는 3040대의 주부 여러 명의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계절마다 옷을 사주고 간식과 영양제도 챙겨주며 병원도 주기적으로 같이 다녀오며 카페는 물론 휴가 때도 어디든지 꼭 같이 간다고 호들갑 떨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 있자니 시댁과 친정 부모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애완견과 관련된 이야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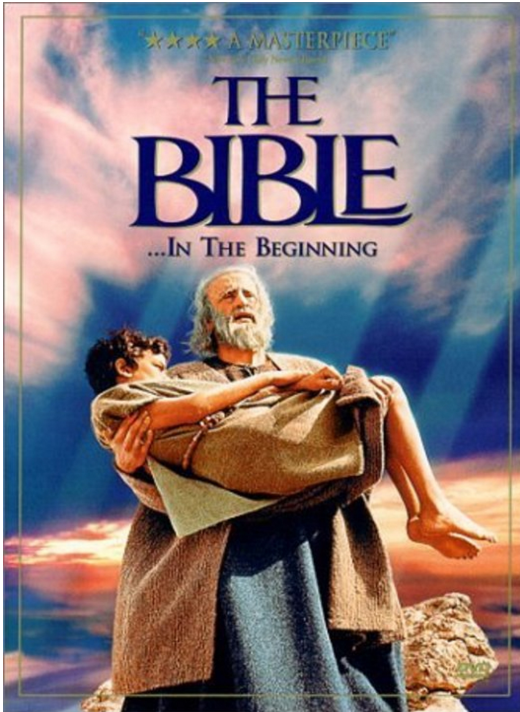
우리 주변에는 부모에겐 어쩌다 명절이나 생신 때 마지못해 전화 통화를 하고, 부모가 아프다고 하면 콜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는가 하면 부모님 용돈은 제대로 주지도 못하면서 다 죽어가는 개를 살리고자 수술비로 수백만 원을 아끼지 않고, 거기다가 죽는 경우에는 장례식을 치른다고 하니.... 아무리 애완견이다 반려견이다 하지만 내 상식으로는 개 취급도 못 받고 소천하실 그들의 부모님을 생각하니 필자인 내 마음이 많이 어수선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제5계명은 어디로 갔는지... 안타깝다.



하나님의 마음 His only Son

김춘배 화백(성시신문 편집위원)



필자가 대학 때 접한 수많은 철학저서들 중에 아직 생생하게 뇌리에 남아 숨 쉬고 있는 서론(序論)을 가진 책이 있었는데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Søren Aabye Kierkegaard, 1813~1855)의 <공포와 전율>(Frygt og Bæven)이다.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나 외에 다른 것에 책임을 돌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라고 말했던 실존주의의 선구자 키르케고르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아주 심오하고 감동적인 정서로 성찰하며 설파하는 저서를 남겼다. 1843년에 나온 그 책에서 아브라함이 늦게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사건(창세기 22장)을 여러 관점과 정황의 가상 설정으로 펼치면서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읽고는 상상도 못 할 내밀한 심리와 갈등을 분석하는 실로 신선하고 충격적인 사유(思惟)가 전개되는 것이었다. 물론 성경을 제대로 알지 않고는 그의 철학을 이해

할 수 없는 매우 신실한 믿음의 철학을 실존주의로 승화시킨 것인데 그 대목이 필자에게 오늘까지 나름의 신학적 기초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얼마 후 영화관에서 존 휴스턴 감독의 1986년 작 <천지창조>(The Bible)를 보게 되었는데, 빛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마련하여 주신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시작으로 노아의 홍수를 거쳐(감독 자신이 노아로 출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려 하는 이야기까지 다룬 걸작이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울컥 눈시를 적신 경험이었다. 거기서 아들 예수를 인간을 위해 바치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봄 극장가에 놀라운 제목의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 당연히 부쩍 힘들어진 몸을 겨우 이끌고 영화관에서 관람했다, 영화 소개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뒤늦게



100세 때에야 얻었으나 여호와와 명령을 좇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 길을 떠나는 3일간의 이야기로 당연히 키르케고르와 <천지창조>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 신에 대한 신뢰로 기꺼이 아들을 희생하려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를 그린 ([출처] 믿음과 회개, 인간의 영원한 가치 고찰<하나님의 마음> His Only Son2023, 결말리뷰|작성자 섬유돌이) 이 영화는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로 성경을 모르는 많은 관객에게 크나큰 감동과 더불어 깊은 공감으로 아주 높은 평점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사람을 위해 고난을 받고 피 흘리게 하는 제물로 받으시는 마음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한 것이겠는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마음이 과연 ‘흔쾌’ 하겠는가? 아주 늦게야 사라의 몸에

서 나온 사랑하는 아들을 한칼에 죽이려는 마음의 갈등이 매우 힘겹고 고통스러운 감정의 프리즘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의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려 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이다. 또한 그 3일 길도 부활의 주님이 무덤에 계신 기간의 예시(豫示)인지 모른다.

미국 개봉 당시 해외 평론가들은 “영화는 매우 기독교적인 결말과 최고의 인디 스토리텔링과 함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충실히 전한다(Film Threat), “영화는 인류와 신의 관계를 조사하고 시청자가 그러한 명령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도록 실질적으로 요구한다(The Independent Critic.com), “진실과 스펙터클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짜릿하고 신랄하며 마음을 사로잡는 여정”(NYC Movie Guru),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확신과 성실함으로 전해진다”(Aisle Seat), “영화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여정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WORLD)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처:크리스천데일리)

김복동

Salvation 2013-3
237.7×115cm
oil on canvas & wood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네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마2:6)

‘목동들의 경배 The Adoration of the Shepherds’에서 조르쥬 드 라 투르(Georges de la tour)는 촛불의 화가답게 그 광원만으로 빛을 표현하였는데, 깊고 진한 감동으로 숙연함을 갖게 한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마주한 관객은 기쁨과 환희의 장면을 기대하나, 그의 탄생을 경배하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목동과 박사들은 무겁고 진중한 표정으로 일관한다. 빛이 있는 곳과 경배하는 인물들의 시선방향으로 따라가 보면 자연스럽게 아기 예수로 집중되는데, 거기에 있는 아기 예수는 마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 하듯 온몸을 수의 같은 천으로 감싸고 깊이 잠든 모습이다. 인류를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구유에 오신 구원(Salvation)의 예수를 나타내려는 작가의 의도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놀라운 표현의 비밀은 측면에서 비추는 강렬한 빛과 그림자의 미학에 있다. 테네브리즘(카이로스크류) 기법은 단순한 명암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 정신(mind), 심리(psychology) 등의 다양한 깊이를 나타낼 수 있는데, 작가는 작품 속에서 촛불의 빛을 통해 신비스러운 아름다움을 감동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현대 여인은 구원자로 오신 그분의 탄생을 감사하며 찬양한다. 또한 광야에서 세상을 향해 외쳤던 세례요한처럼 호소한다.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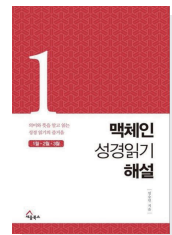


책속의 책

정숙현 전도사(안디옥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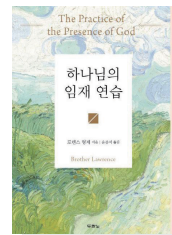
맥체인 성경읽기 해설 / 임승민 지음 / 세움북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해에 성경 일독쯤은 하고 싶은 소망을 갖는 새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며, 삶을 질서 있게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영광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선물인 성경을, 맥체인 성경읽기표의 순서에 맞추어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한 이 해설서를 가지고 도전해 보면 좋겠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 로렌스 형제 지음 / 윤종석 옮김 / 두란노서원

주방의 성자라고 불리는 로렌스 형제, 그의 글을 통하여 자신을 훈련시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해 본다. 경건의 삶이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연습을 통하여 삶의 습관, 체질이 되어 일상의 어디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잘 쉬다는 것 / 애덤 마브리 지음 / 김보람 옮김 / 좋은씨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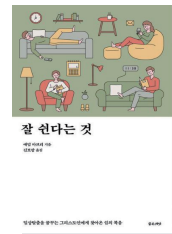
“하나님은 쉬셨다. 그저 소진되어서가 아니라 충만한 기쁨 가운데 쉬셨다.” (p32)

“중에게 쉼은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자녀에게 쉼은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이 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자녀로 부르셨다. 이것은 쉼의 복음이다.” (p151)

종의 삶, 자녀의 삶...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이 충만한 기쁨 가운데 쉼을 누리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그것을 누리라고 하신다.





유향과 몰약

이시형 원장(이시형 한의원)

12월은 성탄절이 있다.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이가 성탄을 즐기고 있다.

예수님의 탄생 때 동방박사 3명이 예수님을 찾아 갔는데 이때 가지고 온 예물이 황금, 유향, 몰약이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되어있는데 창세기 37장 25절에 따르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상인들은 “향신료와 발삼, 몰약을 실은 낙타”를 가지고 있었고, 출애굽기 30장 23~25절에는 모세가 신성한 기름의 주성분으로 액체 몰약 500세겔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유향은 감람과에 속하는 유향나무의 수액을 건조시켜 만든 약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홍해 연안에서 생산되어 수입하는 약재이다.

동의보감에서 열(熱)하고 맛은 매우며[辛] 약간 독이 있다.

‘뭉친 혈액을 흩어지게 하고 통증을 멎게 하고 새 살이 빨리 살아나게 하는 작용이 있어 외과치료에 좋은 약이다.’라고 기재되어있다.

그래서 등창, 용기, 치질, 타박상으로 인한 통증, 골절, 출산 시 산통, 소아경기, 소아복통, 천연두 정신질환 이질 두통 구내염 치통 허리 뻠 데 등에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몰약은 감람과에 속하는 몰약나무의 수액을 건조시켜 만든 약재이다.

고대시절부터 향수, 의약품등의 다수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고대 근동 지방이나 중동 지역 및 유럽에서는 매우 귀하게 여겼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드는데 방부제로 사용하였다.

동의보감에서는 성질은 평(平)하며 맛은 쓰고[苦] 독이 없다. 타박상, 뼈와 힘줄이 상하거나 부러져서 어혈이 지고 아픈 것, 매 맞아 생긴 상처, 쇠붙이에 다친 것에 부은 것을 가라앉히며 통증을 멎게 하고 하는 효능을 지녔다.

그래서 구내염, 치통 근육통, 위완통, 치질, 중풍, 종기, 골절, 불임, 산후증상, 경기 등 다양한 증상에 가루 내어 바르거나 복용을 하였다.

동의보감에서는 주로 몰약과 유향을 같이 사용하는 처방이 많은데 그중 유향산은 유향, 몰약, 백반으로 구성되어 구내염이 있을 때 가루 내어 상처에 바르기도 하였다.

유향과 몰약은 고대의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고귀한 약재를 예수님 탄생에 바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아픈 이들을 위해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성탄을 맞이하길 바란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가천홍 강은주 경동현 고순덕 고순화 고정희 광복연 광혜옥 광 환 국주영 권경애 권양희 권여림 권영자 권웅인 권혁자 권혁재
권현정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금란 김기영 김기자 김다정 김도희 김두철 김매순 김명선 김명희 김문수
김미경 김미라 김미숙 김미향 김민섭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옥 김상화 김생수 김설아 김성국 김성희 김세환 김수연 김수일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순월 김순희 김양수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순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분 김옥선 김용배
김용선 김웅기 김원중 김은아 김은희 김점자 김정미 김정숙 김정에 김정의 김정희 김중복 김중숙 김중옥 김중익 김중찬 김중희
김주봉 김주혁 김주형 김지영 김춘화 김태균 김학자 김향자 김현주 김현철 김형욱 김혜란 김화분 나정희 남궁영숙 남궁자 남준섭
남하은 노길자 노윤미 노정희 류현구 문현숙 민경원 민병순 민병익 박갑출 박건섭 박금화 박금희 박낙영 박노향 박덕남 박동호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문순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상준 박상혁 박선옥 박소영 박소원 박숙영 박순덕 박순배 박애자 박영민
박영호 박옥화 박윤철 박은경 박은혜 박인관 박정란 박정원 박종일 박주환 박지인 박지혜 박지환 박창범 박춘자 박필상 박 현
박형덕 박혜성 박 희 박희상 방진선 배영순 배미정 배진철 배하나 배한솔 백광일 백춘학 서경숙 서효석 서성진 서소옥 서연숙
서은아 서현애 석지찬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병서 손인규 손임수 손학균 손갑수 손근영 손미화 손수정 손영인 손정심 손창근
신건호 신경자 신금호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성균 신안섭 신영선 신옥섭 신옥자 신은수 신종길 심규향 안순연 안한나 안현주
양봉남 양재순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엄기증 엄기홍 엄혜련 여경규 연소홍 연정화 엄은희 엄정원 오성남 오성예 오소연 오제영
오홍근 오홍수 오애중 오영옥 우혜진 원병열 원선미 원예출 원유미 원화순 원희정 유 근 유나예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영재
유용근 유재남 유점선 유정순 유정희 유희자 유근숙 윤기춘 윤성자 윤서경 윤애자 윤영기 윤은미 윤은옥 윤정녀 윤정희
윤학범 윤홍록 이기현 이광재 이광필 이규현 이기환 이동현 이명숙 이명순 이무식 이문희 이미숙 이미영 이병림 이병일 이병철
이봉연 이선임 이성도 이성숙 이소영 이숙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숙 이연화 이연희 이영규 이영순 이영윤 이영준 이영진 이옥순
이완래 이용숙 이원일 이윤규 이윤주 이은경 이인숙 이재근 이재선 이정미 이정옥 이종완 이종현 이주영 이지영 이지는 이진주
이창주 이천희 이춘선 이춘훈 이태우 이하경 이한수 이현석 이현아 이혜란 이혜옥 이효민 이희화 임덕수 임미화 임소희 임순희
임쌍용 임윤희 임인숙 임재철 임정용 장경수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준용 장지원 장진순 장창순 전수진 전운배 전정희 정계지
정국환 정규시 정금옥 정명옥 정복례 정복희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유빈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주향 정지혜 정진호 정치웅 정현우 조경대 조경자 조남진 조도산 조상균 조성경 조소현 조광숙 조영순 조영자 조원순
조은비 조정섭 조정일 조종현 조진경 조현옥 주명호 주신자 지영필 지운용 지윤성 지정훈 차유진 차재욱 차재관 천향호 최광우
최귀숙 최돈식 최동규 최명기 최문수 최미정 최미혜 최민기 최민희 최선이 최선혜 최선희 최성현 최순희 최승경 최승태 최승화
최연화 최영순 최영희 최예샘 최옥순 최윤영 최은숙 최은순 최인숙 최재중 최정락 최종대 최종인 탁광희 피종호 하원자 하윤옥
한은희 한명수 한성우 한순덕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희현 함서현 하순영 허 엽 허인영 허정자 현연희 현재용 홍기수 홍순복
홍영숙 홍은숙 홍의표 홍인숙 홍춘애 홍택기 홍혜림 황금심 황기현 황병찬 황은주 황정숙 황태흠 황병규

후원교회

감 리 교 회 강 변 제 일 교 회 강 원 침례 교 회 거 성 침례 교 회 그말씀양문교회 금 산 교 회
나 능 성 결 교 회 동 신 장로 교 회 밝 은빛장로교회 사 랑 의 교 회 사 암 성결교회 새 춘 천 교 회
석 사 감 리 교 회 소 양 성 결 교 회 소 양 제 일 교 회 순 복 음 열린교회 순 복 음 제 일 교 회
순 복 음 조은교회 순 복 음 춘천교회 신 북 교 회 신 성 감 리 교회 아 미 교 회 임 마 누 엘 교 회
엠 마 오 교 회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 예 사 랑 교 회 예 수 춘 교 회 옥 산포침례교회 온 누 리 교 회
우 두 감 리 교 회 주 의 숲 교 회 주 찬 양 교 회 주 향 장로교회 주 향 동 부 교회 춘 천 에 담 교 회
춘 천 광 명 교 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 천 명 성 교 회 춘 천 동 부 교회 춘 천 예 담 교 회
춘 천 은 평 교 회 춘 천 이 해 교 회 춘 천 일 신 교 회 춘 천 중 앙 성결교회 춘 천 제 일 교회
춘 천 침례교회 춘천평화교회 하 늘 평안 교 회 한 빛 교 회 한울섬김교회 혈 동 교 회
화 목 교 회 후 평 제 일 교 회 춘 천 광 장 교 회 산 슬 교 회 산 천 무 지 개 교회 제 자 감 리 교 회
하 늘 기쁨교회 성 광 교 회 쉽 이 있 는 교 회 암 스토클링교회 춘천효자감리교회 효 신 교 회
초 대 교 회 평 성 성 결 교 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매일관광 베드로선교센터 설곡산기도원 아가갤러리 영광한의원 월드비전 춘천CBMC 춘천와이신협
철락의 기쁨 행복재가요양기관 ▶명단(단체)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T.033)256-1260 H.010-9698-2993 / 후원계좌번호:신협 131-005-937566(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간 1998년 9월 15일 발행인 이사장 이수형 편집장 최상도, 이관형 편집위원 이연희, 이영규, 김춘배, 정숙현, 김진솔
편집·발행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9 문의 (033) 256-1260 팩스 (033) 257-1260
메일 holycc1972@daum.net

*본 매거진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 매거진에 실린 글, 사진, 그림 등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드림애드에 있으며 허락없이 본 매거진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나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기독교 120년사

문의 : 춘천성시화운동본부(010-9698-2993)
필요하신 분은 문의부탁드립니다



춘천기독교 120년사 편찬위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새해 2024년도 춘천을 품은 예수님과 함께^^